

# 부상투혼, 과연 선수가 ‘선택’ 하는 것인가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하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하기 약 3주 전,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안와골절 부상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최소 4주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많은 사람은 손흥민 선수를 걱정하며 빠른 회복을 바라면서도 ‘그래도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해야 하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국가대표팀 전력 저하를 이유로 부상 투혼이라는 말 아래 선수들의 건강을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고자 한다.

## 다쳐도 경기장으로

부상 투혼(負傷鬪魂)이란 무엇일까. 부상 투혼은 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끝까지 투쟁하려는 기백을 말한다. 보통 휴식을 해야 하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출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선수를 수식하는 말로 쓰인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해당 단어를 검색하면 최신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카타르 월드컵을 비롯해 농구, 배구, 야구,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에서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시 경기장으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팀 스포츠의 경우, 가장 큰 이유는 ‘전력 손실’이다. 주전 선수가 아니거나 대체할 선수가 존재한다면 팀에서도 해당 선수의 출전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전이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라면 대부분 예상 회복 기간보

다 빠르게 경기에 출전하곤 한다. 해당 선수의 출전이 곧 성적과 직결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에 있다.

대표적 국제 대회인 올림픽, 월드컵 등은 4년마다 열리는 빅 스포츠 이벤트다. 이처럼 큰 규모의 대회는 모든 선수에게 간절한 기회다. 선수로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세계 정상에 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의 선수에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다. 운동선수에게 4년이란 시간은 은퇴를 고려할 수 있는 긴 시간이다. 젊은 선수들 또한 4년 후에도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에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다. 결국 선수들은 봉대를 감고서라도, 보호장비를 착용하고서라도 대회에 출전하고자 한다.



삐뚤어진 붉은 악마 일부 누리꾼이 부상을 입은 선수에게 성적 저조를 이유로 비난하고 있다.

글그림 김수빈 기자

## 만들어진 아름다운 고통



박장혁 선수가 부상투혼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계주 5,000m 은메달을 획득했다. 그의 손에 부상의 흔적이 보인다. 출처: OSEN

임승엽·박재우 교수가 2012년에 발표한 [한국 스포츠의 부상투혼 담론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 고찰]에서는 “한국 스포츠에서 부상 투혼은 선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의해 환경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하위문화 내지는 선수에게 요구되는 윤리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부상 투혼은 ‘선수 스스로 목표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팀의 전력 향상과 경기의 승리를 위해’, ‘지도자의 요구에 의한 과잉 동조’, ‘부상 투혼을 자극하고 선수들의 부상을 과소평가하는 팬들의 의식’까지 총 4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 “ 메달에 가려진 선수 ”

우리 대학 동문인 쇼트트랙 박장혁 선수도 부상 투혼으로 유명해진 바 있다.(266호 4면 참고) 2022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1,000m 경기에서 부상을 입고 응급치료를 받았다. 그 뒤 5,000m 남자 계주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따냈고, 미디어 매체에서는 그의 부상 투혼에 찬사를 보내는 기사가 넘쳐났다. 그러나, 그가 메달을 따기 전까진 2,000m 혼성계주 예선에서 떨어져 탈락했다는 점과 다른 종목에서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중에게 그가 아무 메달이 없었고, 이대로 메달 없이 귀국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심어준 것이다.

당장 언론사 사이트에 ‘부상 투혼’을 검색하면 부상 투혼으로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선수 개인의 건강을 염려하기보다는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

## 20년 후, 여전히 그라운드에는 마스크가



김태영 선수가 2002 한일월드컵에서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임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는 2022년과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나선 선수가 있다. 바로 2002 FIFA 한국·일본 월드컵(이하 한일 월드컵) 국가대표 김태영 선수다.

일명 ‘타이거 마스크’로 불린 김태영 선수는 한일 월드컵 16강전에서 코뼈가 함몰되는 골절상을 입었다. 그러나 4일 뒤 8강전에서부터는 안면 보호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임했다. 그는 11월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팬들의 응원에 내가 부상 당한 것도 잊었다. 그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선 멈출 수 없었다”고 답했다. 큰 부상이었지만 한일 월드컵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가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손흥민 선수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자신의 SNS에 게시물을 남겼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뛰는 것은 많은 아이들이 축구선수로 성장하면서 꿈꾸는 일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 꿈을 지금까지 변함



손흥민 선수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나섰다. 안와골절 부상으로 수술 후 충분한 회복기가 필요했지만 빠르게 그라운드로 복귀했다. 출처: 연합뉴스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덧붙여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만 보며 달려 가겠습니다”라며 게시글을 마쳤다. 부상 당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남긴 것이다.

그러나 11월 28일에 열린 대한민국-가나와의 경기에서 패배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그의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 마스크로 인해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90분이 넘게 뛰어 얼굴이 부을 정도였다. 하지만 승리로 이끌지 못했다는 이유로 더 높은 강도의 ‘투혼’을 바라던 사람들이 그에게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2018-2022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맡은 파울루 벤투 감독(이하 벤투 감독)은 선수들의 몸 상태에 관련해 이미 작심 발언을 한 바 있다. 벤투 감독은 11월 10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번 시즌 한국 축구는 플레이 오프와 결승전이 72시간 안에 모든 경기가 치러졌다”며 “(대한축구협회는) 사실 선수 휴식은 필요 없고 중요한 게 돈, 스폰서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의견은 한국에서 대표 팀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는 것”이라 전했다. 월드컵이 시작하기 직전까지 주축이 되는 일부 선수들이 K리그와 FA 컵 등을 이유로 빠듯한 일정을 수행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실제로 벤투 감독의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였던 김진수 선수는 16강 경기인 브라질 전을 마치고 인터뷰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월드컵 직전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그는 자신이 속한 전북 현대에서 많은 경기를 뛰며 이미 체력이 바닥났었다. 그는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몸이 안 움직였어요”라고 솔직한 마음을 언급했다. 이어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어떻게든 다시 회복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의 부상과 어려웠던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누리꾼들은 그의 부진을 이유로 김진수 선수의 개인 SNS에 악성댓글을 남겼다.

## 은퇴해도 이별할 수 없는

운동 선수는 부상과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다. 다시 말해 선수 생활을 그만두기 전까진 부상을 달고 살아야 한다. 혹은 은퇴하고 나서도 평생을 부상과 싸워야 한다.

대한민국 스피드 스케이팅 간판이자 우리 대학 동문인 이상화 선수는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이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하 평창 올림픽)에서 아픈 몸을 견디며 경기에 나섰다. 그는 왼쪽 무릎 연골이 닳아 물이 찼으나 수술할 경우 선수 생활을 마쳐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건강보다 선수 생활을 택했다. 그리고 그가 오른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서 무릎은 견디지 못하고 빼놓았다. 그래도 은메달을 따냈다. 3연속 올

림픽 메달 획득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고질적인 무릎 부상으로 예전과 같은 기량으로 회복하지 못함을 짐작한 그는 은퇴했다.

이상화 선수는 평창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 후 KBS 인터뷰에서 “벤투버(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만둘 것이라는 다짐을 했다”고 밝혔다.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지만 한 번만 더 하자는 주변의 만류에 2014 소치 올림픽에도 출전해 2연패를 달성했다. 그가 목표를 달성한 밴쿠버 올림픽에서 은퇴하는 것을 아쉬워한 것은 이상화 선수 본인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은퇴를 미



이상화 선수가 은퇴후 재활운동을 하고 있다.

출처: SBS

룬 선택의 책임은 오히려 이상화 선수 자신의 건강 악화로 돌아왔다.

## 기자생각

### 자신의 건강을 행커도 비난받지 않도록

선수들의 타고난 신체나 만들어진 몸은 일반인보다 튼튼하다. 그렇다고 그들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지 않는 동작이나 운동을 수행하기에 더 크게 다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선수의 부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동기부여와 같은 가치로 선수들의 건강을 소비하기도 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선수와, 가르치는 감독 코치 역시 부상보다 승리와 우승에 큰 가치를 둘 때도 종종 보인다.

운동선수의 생명은 타 직업에 비해 그리 길지 않다. 그 말인즉슨 선수로서의 삶보다 선수가 아닌 삶을 더 많이 살아갈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수가 자신의 업적, 팀의 승리, 국민적 열광에 대한 동조를 선택하는 길도 열어줘야 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먼저 선택하는 길도 비난받지 않도록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

김수빈 기자 202080006@m365.knsu.ac.kr